2024 년 8 월 2 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Market 김지현** jeehyun12@kiwoom.com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미 증시, ISM 제조업 PMI 부진, 경기침체 우려에 급락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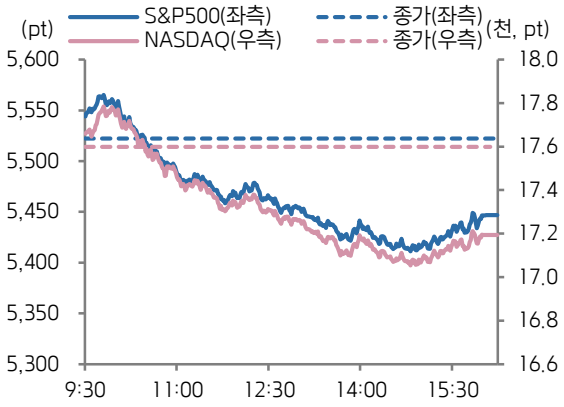
1 일(목) 미국 증시는 메타(+4.8%)의 호실적에도, 7 월 ISM 제조업 PMI 쇼크, 실업지표 부진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를 확산시킴에 따라 10 년물 금리는 4%대를 하회했으며 이 여파로 엔비디아(-6.7%), 테슬라(-6.5%) 등 M7 주를 중심으로 급락세를 연출(다우 -1.2%, S&P500 -1.4%, 나스닥 -2.3%).

업종별로는 유틸리티(+1.9%), 부동산(+1.6%), 필수소비재(+1.1%) 등이 강세, 기술(-3.4%), 에너지(-2.6%), 경기소비재(-2.3%) 등이 약세.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애플(-1.7%)은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컨센을 상회했으나, 시간외에서 1%대 하락 중. 아마존(-1.6%)도 영업이익, 순이익 등 전반적인 실적은 컨센을 소폭 상회했지만, 3 분기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5% 대 하락 중. 인텔(-5.5%)은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 속 전체 인력의 15%에 달하는 인원을 감축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시간외에서 19%대 폭락 중.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엔비디아(-6.7%), AMD(-7.4%), 마이크론(-7.6%) 등 주요 반도체주들이 동반 폭락세를 기록하면서 7.1%대 하락.

미국의 7 월 ISM 제조업 PMI 는 46.8 로 전월(48.5) 및 컨센(48.8)을 모두 하회하는 쇼크를 기록. 세부 항목 상 신규주문(47.4 vs 컨센 49.0), 고용(43.4 vs 컨센 49.0) 등이 모두 급락하면서 전반적인 제조업 PMI 쇼크를 견인. 또 고용지수의 경우 2009 년 5 월 이후 최저치로서, ISM 측은 6 개 대형 제조업 섹터 중에 고용을 확대한 곳이 1 곳도 없었다고 설명.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도 24.9 만건으로 전주(23.5 만건) 및 컨센(23.6 만건)을 모두 상회하는 등 여타 지표 상으로도 고용시장 둔화가 감지되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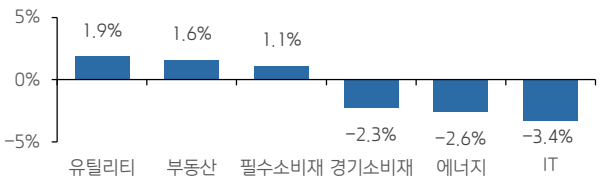
영란은행은 7 월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5.25%에서 5.0%로 25bp 인하를 결정. 이는 2020 년 3 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으로서, BOE 측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인하의 배경이라고 설명. 또 BOE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확신이 필요하며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많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언급.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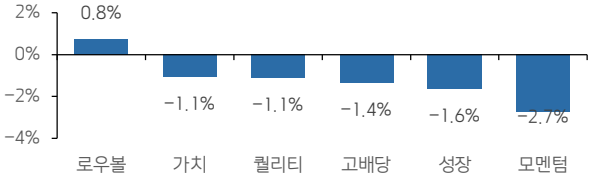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777.68	+0.25%	USD/KRW	1,369.13	-0.15%
코스피 200	380.54	+0.01%	달러 지수	104.42	+0.31%
코스닥	813.53	+1.29%	EUR/USD	1.08	-0.01%
코스닥 150	1,358.26	+1.46%	USD/CNH	7.25	-0.01%
S&P500	5,446.68	-1.37%	USD/JPY	149.23	-0.09%
NASDAQ	17,194.14	-2.3%	**채권시장**		
다우	40,347.97	-1.21%	국고채 3 년	2.975	-2.5bp
VIX	18.59	+13.63%	국고채 10 년	3.012	-4.5bp
러셀 2000	2,186.16	-3.03%	미국 국채 2 년	4.148	-10.9bp
필라. 반도체	4,859.59	-7.14%	미국 국채 10 년	3.976	-5.4bp
다우 운송	15,812.10	-1.69%	미국 국채 30 년	4.276	-2.7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765.72	-2.2%	WTI	76.86	+0.72%
MSCI 전세계 지수	803.40	-1.32%	브렌트유	79.52	-1.49%
MSCI DM 지수	3,518.01	-1.5%	금	2490.1	+0.37%
MSCI EM 지수	1,087.80	+0.28%	은	28.61	+0.45%
MSCI 한국 ETF	65.32	-1.85%	구리	406.95	-0.3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85%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75%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2.21%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67.5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전일과 달리 경기침체 및 경착륙 우려를 크게 반영 2. 9 월 25bp 인하 전망 유지하지만, 다음주 ISM 서비스업지수 발표까지 일별 변동성 확대 예상 3. 기존 주도주 중 금리인하 수혜주인 제약바이오, 경기와 무관한 실적주인 전력기기로 대응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실업수당 청구건수 예상치 상회한 이후 10 년물 금리는 4.0%로 하락했으며, S&P 글로벌 제조업 PMI, ISM 제조업 PMI 이 순차적으로 예상치 하회하며 3.9%대까지 추가하락. 시장은 골디락스 환경을 반영했던 전일과 달리 경기침체 및 경착륙 우려를 크게 반영. 일별 변동성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투자심리가 불안하다는 반증.

7 월 ISM 제조업 PMI 가 46.8(예상 48.8, 전월 48.5)로 예상치 하회. 신규주문 전월 49.0 -> 47.4, 고용지수 전월 49.3->43.4 로 급락한 점이 악재로 작용했으며 연준이 강조했듯 시장의 초점이 물가에서 고용으로 옮겨간 것을 확인. BOE 기준금리를 5.0%로 25bp 인하 결정, 2020 년 이후 4 년 만에 첫 금리인하 단행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연준 역시 7 월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했어야 했다는 시각이 제기되며 9 월 50bp 인하 가능성은 12% 에서 20%로 급등.

9 월 50bp 인하 실현시 경기 침체 시그널, 미일 금리차 축소로 인한 엔화 강세 심화 유발하며 리스크 오프 요인으로 작용할 것. 그러나 1) 전일 파월의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50bp 인하를 당장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 2) 고용지표의 경우 실업수당청구건수는 예상치 상회했으나 7 월 챌린저그레이 해고건수 yoy 증가율은 전월 19.8% -> 9.2%로 오히려 하락하며 엇갈린 결과, 급격한 고용 냉각의 시그널로 보기에는 어려움.

따라서 9 월 25bp 인하 전망 유지하며, 금일 발표될 고용보고서에서 신규고용 컨센서스 17.5 만명 (전월 20.6 만명) 하회하더라도 금일 선반영 인식으로 반등 시도할 것으로 예상. 다만 빅테크 실적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다음주 초 ISM 서비스업지수 발표까지 일별 변동성 확대 국면 예상.

1 일(목) 국내증시는 비둘기파적이었던 FOMC, 고용지표 둔화, 엔비디아 급등 등에 위험선호심리 확산되며 강세(KOSPI +0.25%, KOSDAQ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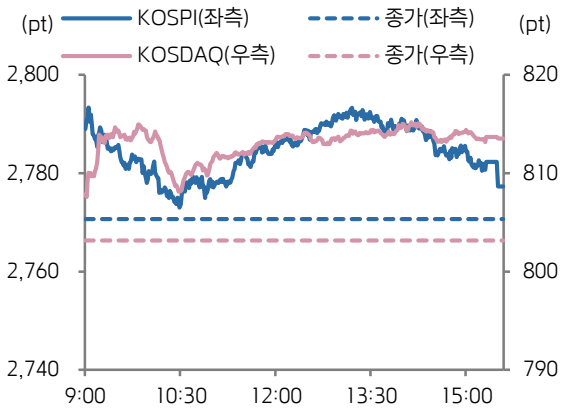
금일에는 경기침체 및 수요둔화 우려가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개별종목별로 차별화 예상.

반도체는 전일 엔비디아 급등, 메타 25 년 CAPEX 상향 언급 등이 추가 강세 요인이 되지 못하고 차익실현의 빌미로 작용하며 상승폭 반납하는 등 최근 나스닥과 엇갈린 흐름을 지속. 그러나 금일에는 인텔, 아마존 시간외 급락세가 반도체 이익 증가율 피크아웃 우려를 재점화시키며 추가 하락할 여지에 무게. 7 월 반도체 약세 요인 중 엔화의 급격한 강세로 인한 일본 테크주의 급격한 조정, 업사이클 종료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보수적 접근 필요하다는 전망 유지.

한편 7 월 한국수출은 YOY 13.9%(예상 18.4%, 전월 5.1%)로 10 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특히 중국향 IT 수출 회복, 반도체 YOY 50.4% 증가하며 4 개월 연속 50% 이상 유지하며 긍정적. 한국 수출과 동행성 보이는 ISM 제조업 지수의 부진과는 대조적으로 수출 증가율 피크아웃 우려는 해소, 일부 화장품, 의료기기 반등, 조선, 방산 반등. 지수 하락 직후 수출실적주의 반등세가 가장 먼저 나타난다는 점 감안시 추세가 꺾이진 않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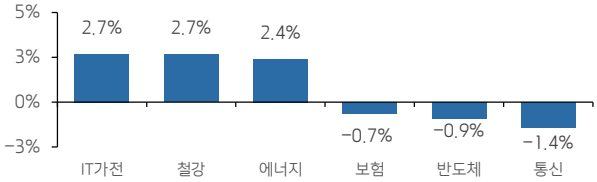
다만 엔화 강세로 촉발된 미달러 약세,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강세는 수출주에는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엔화 140 엔 중반 에서 안정될 때까지는 차익실현 요인으로 존재할 가능성. 기존 주도주 중 금리인하 수혜주인 제약바이오, 경기와 무관한 실적주인 전력기기로 대응할 필요. 전일 미국 변압기 업체인 이튼은 2 분기 실적발표에서 데이터센터 비롯한 전력인프라, 항공우주 부문의 성장률 상향에 기인해 24 년 매출성장률, 이익률 가이던스를 세 개 분기 연속 상향.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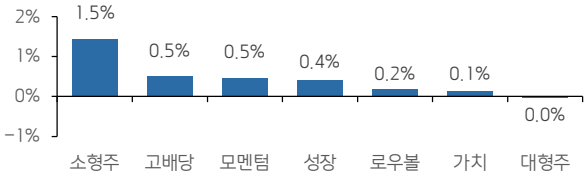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8월 1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